

1990년대 중국소설에 나타난 남성성 연구(1)*

최 은 정**

<目 次>

- | | |
|--|----------------------|
| I. 들어가면서 | IV. 새로운 남성성의 모색 : 이질 |
| II. 위축된 남성성 세우기 : 물질 화된 남성가장의 우울함 | 화된 영웅적 남성성의 유포 |
| III. 지배적 남성성 비틀기 : ‘성공 한 남성’의 은폐된 “半张脸” | V. 나오면서 |

I. 들어가면서

성별화된 사회에서 남성성은 성별적 남성에게 주로 학습되고 실천¹⁾되며, 남성들이 “적절한 문화적 방식으로 재생산하도록 학습한 사회적 행위 규칙들로 구성”²⁾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성성은 “남성들에게 문화적으로 기대하는 일련의 역할 행동”³⁾으로, “성인 남성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 속에 남아 있기 위해 따르도록 강요되는 대상”⁴⁾이다. 이는 대

* 이 논문은 2018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과제번호 20180486).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전공 교수

- 1) 이영자, <남성성의 사회적 구성과 성의 정치>, 《성평등 연구》 5, 2001, 84쪽.
- 2) 존 베이닌(임인숙·김미영), 《남성성과 문화》,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1, 15쪽.
- 3) Christopher T. Kilmartin(김지현 외 공역), 《우리 안의 남성》, 학지사, 2009, 49쪽.
- 4) 토마스 퀴네(조경식·박은주 역), 《남성의 역사》, 솔 출판사, 2001, 308쪽.

체로 기질적인 특성, 하는(해야 하는) 또는 하지 않는(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나 활동, 역할에 의해 정의된다.⁵⁾ 주의해야 할 것은 남성이 된다는 것이 여성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의 실행”⁶⁾이라는 점이다. 이는 남성이라는 정체성의 범주를 구성할 때 개입하는 권력 관계와 그것의 작동방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⁷⁾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남성성이 사회적 역사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실행되면서 남성 정체성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장한다. 남성자아가 어떻게 당대 지배적 남성성⁸⁾을 습득하면서 정체성을 구성해 가는지, 지배적 남성성을 부여받지 못한 남성자아는 어떻게 남성성을 (재/탈)구축하면서 남성으로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지, 남성자아에게 이미 내면화된 남성성은 남성으로 자라는 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중국소설⁹⁾에 나타난 남성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별히 이 시기에 주목한 이유는 남성성의 다양화 현상에 기인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정적이고 규범화된 남성성이 위협을 받는 대신¹⁰⁾, 남성성은 전례 없는 다양화와 복잡성을 띠게 된다. 이는 1990년대 정점에 이른 중국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변화와 관련된다. 1990년대 글로벌화와 소비주의가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개인의 성별인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5) Christopher T. Kilmartin, 앞의 책, 22쪽.

6) R.W. 코넬(안상욱·현민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50쪽.

7)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여성으로 ‘되는 것’이라는 명제를 고려할 때, ‘여성’이라는 정체성의 범주를 구성하는 데 개입하는 사회적 권력 관계와 그것의 작동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한국영미페미니즘연구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390쪽.)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남성성에 대한 연구 역시 여성에 대한 연구와 동일한 관점을 적용할 수 있다.

8) 지배적 남성성은 다른 것들보다 문화적으로 우세한 남성성을 가리킨다. 코넬은 이것이 “문화적 이상과 제도적 권력이 부합할 때 성립”된다고 보았다. R.W.코넬, 앞의 책, 124-125쪽.

9) 이하 본문에서는 1990년대로 통칭한다.

10) 陈建光, 〈男性意识与文学性征〉, 《江西社会科学》 第2期, 2003, 94-95页.

데, 이는 특히 남성자아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¹¹⁾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중국소설은 비단 지배적 남성성뿐만 아니라, 지배적 남성성의 바깥에 놓인 남성성에도 주목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1990년대 소설에서 문제 삼고 있는 남성성의 다양함에 비해, 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다.¹²⁾ 이는 중국에서 남성성 연구의 역사가 그다지 길지 않은 것과 관련될 것이다.¹³⁾ 또, 1990년대부터 남성성을 재현하는 장이 다양화되면서, 지배적 남성성을 양산하고 유포하는 장이 과거 문학에서 대중매체로 이동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상대적으로 문학이 재현하는 남성성은 연구의 중심이 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가운데, 张伯存과 刘传霞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张伯存은 〈中国当代文学和大众文化中的男性气质〉(华东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2006)에서 1950~1980년대 문학작품과 1990년대 최신잡지 및 경찰드라마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각 시기별 지배적 남성성을 고찰했다. 刘传霞는 〈全球化与消费主义话语中的男性再现〉(《山东社会科学》 第8期, 2015)에서 1990년대 이후 문학과 대중문화에 재현된 남성성을 고찰하였고, 〈论新时期文学的男性形象再现与男性气质建构(1976~1989)〉(《海南师范大学学报》 第5期, 2017)에서는 중국 신시기소설에 나타난 지배적 남성성을 분석하였다. 陈建光是 〈男性意识与文学性征〉(《江西社会科学》 第2期, 2003)에서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초에 이르는 문학 속에 남성의식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당대 중국 사회문화의 변천 속에서 지배적 남성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 刘传霞, 〈全球化与消费主义话语中的男性再现〉, 《山东社会科学》 第8期, 2015, 87页.

12) 张伯存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여성성 연구에 비해 남성성에 대한 연구는 어떤 학문분야를 막론하고 매우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中国当代文学和大众文化中的男性气质〉, 华东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2006, 9页 참고.

13) 黄河, 〈男性研究对性别平等教育的意义〉, 《妇女研究论丛》 第2期, 2008年, 42页.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되, 특별히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1990년대 중국소설에 나타난 남성성 서술을 고찰하고자 한다. 하나는 지배적 남성성을 욕망하는 남성들의 남성성 표현과 그 의미이다. 1990년대 중국소설의 남성성 서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가장인 남성이 경험하는 존재 위기¹⁴⁾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남성성의 의미와 표현들이다. 陈建光是 198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이미 신사실소설을 중심으로 남성성의 위기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한다.¹⁵⁾ 이는 ‘성공한 인사’¹⁶⁾가 광범위하게 사회적인 동일시를 확보하는 1990년대 한층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성공한 인사’가 이상적인 남성성을 전시¹⁷⁾하는 가운데, ‘성공하지 못한’ 남성가장들을 위시로 한 남성성 서술은 남성(성)의 위태로움에 대한 사유의 공간을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지배적 남성성의 이중성이다. 1990년대 이후 도시애정서사를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성공한 남성’ 형상은 이들이 마땅히 보여줄 거라 기대하는 이상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지배적 남성성을 전유한 남성의 이면을 보여주면서, 지배적 남성성의 이상성을 해체한다. 마지막으로,

14) 남성(성)의 위기는 “전래된 남성의 주도적인 이미지와 가치들이 의문시되고 남성적인 것으로 간주된 것이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것으로 되는 국면”을 가리킨다.(토마스 쿨네, 앞의 책, 35쪽) 즉, 남성성이 단일하고 고정된 어떤 것이 있다는 전제를 내포하는 것이다. 때문에 존 베이넨은 남성성의 ‘위기’설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존 베이넨, 앞의 책, 130-166쪽 참고.

15) 陈建光, 앞의 글, 95页.

16) ‘성공한 인사’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발전예 따라 등장한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코드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30~40대의 남성으로, 고급 자동차, 고급 호텔과 값비싼 소비 공간, 서구식 주택, 골프 등은 이들을 묘사하는 어휘들이다. 刘旭, 〈小说中的“成功人士”〉, 《在新意识形态的笼罩下》, 江苏人民出版社, 2000, 76页.

17) ‘성공한 인사’에게 부여된 지배적 남성성은 “새로운 당대 영웅”이라는 호칭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蔡翔, 〈私人性和相关的社会想象〉, 《花城》 第4期, 1996, 205页) 잡지와 대중매체가 남성다움의 이상으로서 ‘성공한 인사’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유포하면서, ‘성공한 인사’는 1980년대 이상적인 남성형상인 ‘혁명 영웅’이나 ‘고난 속 영웅’ 및 ‘사나이’ 등과 같은 형상을 대체하는 이상적인 남성형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刘传霞, 앞의 글, 88页.)

‘영웅’에 대한 소환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웅’은 강한 남성성을 전 시하면서 1990년대 지배적 남성성의 주된 표현 기호인 도시/상업/지식 등에 대항한다. 이들이 새로운 남성성으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면서 1990년대에 소환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池莉의 <来来往往>(1998), <有了快感你就喊>(2003), <水与火的缠绵>(2009), 毕飞宇의 <哥俩好>(1997), <那个夏季那个秋天>(1998), 都梁의 <亮剑>(1999)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池莉와 毕飞宇의 작품은 성공을 위해 분투하고 있거나 이미 성공한 남성(가장)의 생존 모습을 매우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都梁의 <亮剑>은 대표적인 신혁명역사소설 중 하나이다. 주지하듯, 신혁명역사소설이 소환한 영웅협객형 인물은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¹⁸⁾ 특히 이 작품은 소설뿐만 아니라 소설을 각색한 드라마까지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당대 문화의 이슈”¹⁹⁾라고 평가받기도 했다.²⁰⁾

이들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고는 일면이나마 1990년대 중국소설에 나타난 남성성의 양상을 밝히고, 나아가 남성성과의 관계 맺음 하에 구성되는 남성 정체성 문제에 대해 사유해 보고자 한다. 이는 사회문화의 변이에 따라 그 특질을 달리하며 구조된 남성성이 당대 중국의 사회현실 속에서 어떻게 읽혀지면서 개별 남성들에게 수용되고 이들의 남성성 수행에 간여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성이 “당대 중국의 사회문화적인 풍향계”²¹⁾라고 할 때, 본 연구는 남성성이 투영된 중국 당대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질을 일면이나마 설명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18) 龚奎林、费飞, <大众文化语境中的新革命历史小说>, 《南昌大学学报》 第2期, 2014, 142-143页.

19) 刘复生, <从欢乐英雄到历史受难者>, 《文艺理论与批评》 第6期, 2005, 38页.

20) 이 외에, 개별화된 남성성(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이분화된 성별 구조에서 남성적인 것에 배치되는 특질을 보여주지 않는 남성성)을 전시하는 남성들의 남성성 인식과 수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는 본 지면에서 다루기에는 내용이 많아서 개별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1) 刘传霞, <1950~1970年代中国文学的男性想象>, 《中国图书评论》 第7期, 2016, 47页.

II. 위축된 남성성 세우기 : 물질화된 남성가장의 우울함

고층빌딩 내 사무실, 고급 레스토랑이나 술집, 고급 호텔, 호화주택, 고급 정장과 자동차 등, ‘성공한 인사’가 놓여 있는 공간은 소비화, 물질화, 도시화된 공간이다. 물질성이 지배적 남성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때, 남성가장은 남성성 구축에 대한 초조와 불안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는 남성성의 가부장적 이념형 중 하나가 가족부양자로 규정되는 것 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²²⁾ 가족부양자로서의 남성성이 규정됨으로써, 남성성은 경제력과 동일시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쓰리의 〈有了快感你就喊〉과 〈水与火的缠绵〉, 비페이위의 〈那个夏季那个秋天〉에 등장하는 남성가장은 이러한 남성성 표현을 매우 잘 보여준다.

〈有了快感你就喊〉의 주인공인 벤룽다(卞容大)는 전체적인 아버지에게 의해 남성다움을 강요당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성장한 그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결혼을 하고,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가장으로서 그의 남성성을 재현하는 방식은 ‘선물’을 통해 형상화된다. 벤룽다가 들고 오는 ‘선물’은 가장으로서 그의 존재 가치와 자부심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의 자부심은 아내의 승진 및 자신의 실직에 의해 훼손된다. 실직으로 인해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그의 모습은 아내인 황신레이(黄新蕾)가 가족들에게 주는 ‘선물’에 대한 그의 반응을 통해 나타난다. 아내가 사준 고급 시계를 손목에 차는 대신 방치하는 모습은 남성으로서 가장의 권위를 위협당한 그의 소극적인 저항이다. 아내의 욕망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의 경제적 무능력 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아내의 남편의 자존을 물질과 교환하는 아내이다. 이러한 아내와의 관계 속에

22) 윌키는 남성성의 일부로서 ‘생계부양자’ 역할을 제시한다. 생계부양자 의식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실업은 남성의 정체성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하는 사건이다. 신경아,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제30권 4호, 2014, 161쪽.

서 그는 남녀관계의 전복을 느낀다. 아내를 피하고 거실 대신 방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은 ‘선물’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소파를 차지하고 있던 모습과 대조되어, 그의 위축된 남성성을 가시화한다. 이들이 상대방을 보는 시선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물질로 기표화된 남성성 및 이것의 내면화이다. 아내와 남편 모두 경제력으로 규정되는 남성성을 수용하고, 이에 따라 결정되는 가족 내 헤게모니를 내재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남성성의 일부로서 가족부양자 역할은 남성에게 지배력을 부여하는 특권이다. 하지만, 경제력과 연동되어 나타나는 이 남성성은 또한 ‘함정’²³⁾이기도 하다. 실직하고도 아무 일 없는 듯 ‘출근’해서 종일토록 방황하는 벤롱다의 쓸쓸한 모습, 아내의 경제적인 성공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벤롱다의 심리는 경제력과 연동된 남성성의 양가성을 보여준다.²⁴⁾

〈水与火的缠缊〉 역시 아내의 경제적인 우월성으로부터 남성성 훼손을 경험하는 남성 가장이 등장한다. 아내인 쩡망망(曾芒芒)이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 것과 달리, 남편 가오용(高勇)은 대학원 진학에 연이어 실패한 끝에 취업하지만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 “남자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당연하다”²⁵⁾는 가오용의 인식에서 나타나듯, 부양자 인식은 그의 남성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때문에 이 역할 수행에 실패하거나 침범받았다고 느낄 때, 남성성의 위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쩡망망에 대한 비난, 그녀와 성향이 완전히 다른 여성과의 외도는 가오용이 쩡망망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남성성의 위축과 열패감을 보상하기 위한 방식이다. 소위 잘 나가는 아내에 대한 비판, 자신보

23) 부르디외는 남성의 특권이 어떤 상황에서도 남성성을 보여야 하는 의무를 남자들에게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함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피에르 부르디외(김용숙 역), 《남성지배》, 동문선, 2003, 72쪽.

24) 이 작품에 대한 남성성 분석은 이미 〈池莉의 〈有了快感你就喊〉에 나타난 남성성 고찰〉(《中國語文學》 71輯, 2016)에서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필요에 의해 약술하였음을 밝혀둔다.

25) 池莉, 《水与火的缠缊》, 北京十月文艺出版社, 2010, 357页. 이하 작품인용은 본문에 표기함.

다 열등하고 순종적인 여성과의 외도 속에서 지배자로서의 권력을 느끼는 것이다. 기실, 쩡망망은 가오융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그가 하는 일을 지지할뿐더러, 자신의 사회적인 성공을 가오융의 덕분이라고 감사한다. 그러나 가오융은 이를 쩡망망의 위선으로 치부하고 더욱 분노한다. 이는 남성의 경제적인 열등성이 가장으로서 그의 권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스스로 자신을 열등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오융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겠다는 이유로 집을 떠나 선전(深圳)으로 가는데, 그의 떠남은 자신의 열등성을 증명하는 공간인 ‘집(아내)’으로부터 탈주를 통해 남성성을 재구축하기 위한 시도이다.²⁶⁾ 이는 그의 떠남이 ‘남자 되기’의 행위로 의미화되는 데에서 나타난다.

아들, 아빠는 선전으로 일하러 가야 해, 한동안 집에 못 와. 너도 초등학교 생이니, 대장부는 원대한 이상과 큰 뜻을 품고 어디 가든 걱정 없이 지낸다는 말, 이해하지?

아빠, 저를 너무 알아보시네요. 대장부는 원대한 이상과 큰 뜻을 품고 어디 가든 근심 없이 지내며, 용감하게 천하를 누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 우리 착한 아들! 아빠는 바로 그런 남자가 되려는 거야. (347쪽)

한편, 가오융이 남성성을 구축하면서 남성으로서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은 지배적 남성성의 변화를 엿보게 한다. 대학원 진학과 졸업을 통해 가오융이 얻고자 했던 신분은 박사이다. 그러나 가오융이 이를 통한 남성성 구축에 실패하고 있음은 당대 지배적 남성성이 지식인이라는 신분과 이것이 내장하는 정신적인 영역 위에서 세워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가오융이 경험하는 남성적 가치는 고층빌딩에 자리한 사무실과 고급 레스토랑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물질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지배적 남성성의 원리를 표방한다.

26)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줄고, <즈리(池莉) 소설에 나타난 ‘집’의 의미 고찰>, 《비교문화연구》 47집, 2017 참고.

〈那个夏季那个秋天〉에 등장하는 리젠궈(李建国)도 물질과 만난 지배적 남성성의 구성 원리를 매우 명쾌하게 드러낸다. 리젠궈는 원래 사범대학 음악강사였다. 아내인 가오칭샤(高庆霞)는 사업을 하는 형부들과 비교하여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함을 탓하고, 그들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 간다. 특히 그는 동창들이 한명 한명 다 “성공한 사람”²⁷⁾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열패감을 맛본다. 장시간의 모색 끝에 그는 음반회사 대표로 취업한다. 취업이 확정되고 귀가한 날, 그와 그에 대한 아내의 태도는 당대가 욕망하는 남성성의 방향을 가시화한다.

리젠궈는 신발을 벗고 집으로 들어가서 식탁에 앉았다. “저녁은?” 리젠궈의 아내는 공기업의 컴퓨터 관련 업무에서 비서를 맡고 있는데, 그녀의 대답은 마치 스크린의 숫자처럼 군더더기가 없었다. “직접 해.” 리젠궈는 탁자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는 이제 강사가 아니야, 지허우평음반회사 사장이라고.” 가오칭샤는 딸의 수학숙제를 버려두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했다. “거짓말?” 리젠궈가 침착하게 대꾸했다. “국수 만들어 줘.” 가오칭샤의 말투에 갈수록 의심이 묻어났다. “거짓말?” 리젠궈가 말했다. “달걀 두 개 넣고.” (중략) 가오칭샤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 주방으로 갔다. 그녀의 손발이 유난히 민첩하게 변했다. (41쪽)

아내의 싸늘한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남편의 모습은 경제적인 능력의 변화에 따른 자신감의 가시화이다. 특별히 리젠궈의 신분 변화를 대학 강사에서 사업가로 설정함으로써 리젠궈가 전시하는 남성성은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변이를 담아내는 장으로서 남성성의 중층적인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뻔뻔다, 가오융과 리젠궈가 보여주는 남성성의 위축과 재구축 과정은 남성에게 내면화된 부양자로서 의식이 남성성 수행에 작동하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핵심요소가 부양자 의식²⁸⁾이고,

27) 毕飞宇, 《那个夏季那个秋天》, 人民文学出版社, 2015, 42页.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에 표기함.

이러한 남성성의 추구하고 실천을 통해 개별 남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남성을 물질화하는 것이다. 도시 남성가장은 이를 가장 극명하게 전시하는 공간인 썸이다.

Ⅲ. 지배적 남성성 비틀기 : ‘성공한 남성’의 은폐된 “半张脸”

‘성공한 인사’가 동일시에 대한 초조와 불안을 유발²⁹⁾할 정도로 대중들에게 깊이 다가서고 있는 것과 호응하여, ‘성공한 인사’는 당대 중국소설의 주요한 인물 유형으로 자리³⁰⁾하게 된다. 주의할 것은 소설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성공한 인사’의 이상성에 은폐된 이면이다. 즉, ‘성공한 인사’의 이상성이 (재)생산되고 유포되면서 삭제된 나머지 “반쪽 얼굴(半张脸)”³¹⁾이다. 〈来来往往〉과 〈哥俩好〉는 지배적 남성성을 전유한 남성자아가 경험하는 관계의 결여로부터 지배적 남성성의 이상성에 가려진 “반쪽 얼굴”을 드러낸다.

〈来来往往〉은 평범한 노동자에서 사업가로 성공한 kangweiyeye(康伟业)의 결혼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kangweiyeye가 맺고 있는 관계는 그가 상징하는 지배적 남성성의 허약성과 공허함을 가시화한다. 이는 그 관계를 통해 기대하는 감정의 결여를 통해 나타난다. 단리나(段莉娜)와 그의 관계에는 부부간 애정이나 신뢰 대신 우월한 자리를 점유하고자 하는 치열한 다툼이 내장되어 있다. 처음부터 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단리나는 계속해서 kangweiyeye를 지배하고자 하며, 이 안에서 kangweiyeye는 남성이자 가장으로서 존재의 위축과 열등을 경험한다. 사업가로 성공한 후 그는 경제적 우월성에 기대어 그녀에게 대항하지만, 그가 점유한 경제적 우월성도 단리나가

28) 각주 23 참고.

29) 张伯存, 앞의 글, 87页.

30) 刘旭, 앞의 글, 76-77页.

31) 王晓明, 〈半张脸的神话〉, 《在新意识形态的笼罩下》, 江苏人民出版社, 2000, 30页.

그에게 굴복하는 요소는 되지 못한다. 캉웨이예는 자신의 삶에서 단리나를 삭제하기 시작하고, 캉웨이예에게 그녀는 점점 “눈앞에 있지만 없는 것과 다름없는”³²⁾(211쪽) 존재가 되어 버린다. 표면적으로 볼 때, 소외된 것은 아내이다. 그러나 딸에 이끌려 만들어진 저녁 식사 자리는 가족 내에서 소외된 존재는 아내가 아니라 캉웨이예임을 보여준다. 즐겁게 식사하는 아내와 딸에 섞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은 가족 내 소외된 존재로서 캉웨이예를 매우 잘 드러내면서, 이들 관계의 공허함을 투영한다. 린주(林珠)나 스위핑(时雨蓬)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결여된 감정을 보상받기 위한 공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들과의 관계 역시 물질이 기반이 된 관계의 허상성을 보여준다. 그가 사랑이라고 생각한 린주와의 관계가 “공중의 사랑”(243쪽)으로 정의되는 것은 이들 사랑의 비현실성과 허상성을 단적으로 설명한다. 스위핑은 그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그를 웃게 만들어 주지만,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한다. 스위핑과의 관계에 어떤 기대도 품지 않는 그의 모습은 이들의 관계가 그저 필요와 계산에 의해 성립된 것임을 설명한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허위와 가식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는 사업하는 중에 만난 술친구들을 떠올렸다.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익 때문에 왕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241쪽)

캉웨이예를 둘러싼 관계의 공허함과 허약성은 그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공간인 고급 호텔, 레스토랑과 별장의 화려함과 대조된다. 장소가 내재하는 화려함이 관계의 화려함으로 위장되어, 그 공허함과 허약성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려함에 가려진 그의 또 다른 모습을 그는 전혀 화려하지 않은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공간에서 만나게 된다. 그곳은 아내가 선택한 식당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음식을 즐기는 식당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도피하듯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관계 맺음이 일어나는 공간으로부터 그가 분리되어 있음을

32) 池莉, 〈来来往往〉, 小说月报编辑部编, 《第8届百花奖获奖作品集》, 百花文艺出版社, 2000, 211页.

상징한다. 화장실에 들어간 그는 거울에 비친 “더럽고 모호한 자신”(240 쪽)을 만난다. 이는 고급 옷차림과 잘 다듬어진 외모의 선명함에 가려진 그의 또 다른 얼굴인 썸이다. 이 얼굴은 캉웨이예를 정의하는 ‘성공한 인사’라는 이름, 그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의 불순함과 공허함을 보여준다.

그가 보여주는 관계의 결여는 사업가로서 성공한 캉웨이예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캉웨이예의 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캉웨이예는 아내와 딸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확신하지만, 아내와 딸이 그에게서 경험하는 감정적인 거리와 이질감, 가족 내에서 소외된 그의 모습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그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하는 것이다. 이는 물질적인 성공이 오히려 가부장제가 부여한 남성 정체성, 즉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그의 존재에 균열을 내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가 생각하는 지배적 남성성의 실천-물질을 통한 가족부양-이 오히려 가부장제가 규정한 남성 정체성과는 불화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의 결여를 통해 나타나는 지배적 남성성의 이러한 아이러니는 〈哥倆好〉에서 한층 더 심화되어 나타난다. 이 작품은 성공한 사업가인 형 투난(圖南)과 이러한 형을 모방하려는 동생 투베이(圖北)에 대한 서사이다. 이 작품이 흥미로운 것은 ‘성공한 인사’인 투난이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자신에 대한 투난의 부정은 그가 가부장제에서 규정된 남성성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다. 주지하다시피, 가부장제 문화에서 남성성 수행은 대체로 아버지, 남편, 아들이라는 역할을 통해 이루어진다. 투난이 보여주는 관계의 결여는 그가 이러한 역할에서 일탈되어 있음을 설명하는데, 그 핵심은 아버지와의 관계 결여이다.

8대째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집안의 장자인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당연한 듯 교사가 되었다. ‘집(고향)’은 인씨 가문의 장자로서 투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투난은 몇 년 후 학교를 사직하고 아내와는 이혼한 후 집을 떠나 낯선 도시로 들어간다.

가난하고 고집스러운 아버지는 삶에 대해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상’을 갖고 있었다.(중략) 이는 후손들의 삶을 모두 규정된 삶이 되도록 요구했다. 하나하나 다 기정방침에 따라 행해질 수밖에 없었다. 투난은 최초의 반역자가 되었다.(중략) 투난의 반역도 일종의 생명이다. 이 생명은 사회상황에 의해 배태된 것이다. 그것은 열 달이 찼고 분만을 피할 수가 없었다. 설령 모체를 찢어야 해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 모체는 투난의 아버지였다. (중략) 투난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신이 뱃속에서 죽을 것이었다. 어떤 생명도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는다.³³⁾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투난은 아버지의 ‘이상’으로서 교육자라는 역할을 거부하고 현실 사회가 부여하는 새로운 삶을 지표로 삼는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들어간 그가 사업에 뛰어들 것을 보면, “사회상황에 의해 배태된” 그의 또 다른 생명은 물질화된 사회에 의해 배태된 생명이다. 투난의 떠남은 ‘장자’ 투난을 기대하는 아버지로부터 분리하여 장자 ‘투난’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다만 이것은 남편과 아들이라는 역할로부터 분리를 수반한다. 달리 말하면, 가부장제가 부여한 남성 정체성 및 여기에 정의되는 남성성 수행의 거부이다. 동시에, 그의 아버지가 상징하는 남성적 가치로서 지식적 정신적인 것의 퇴행과 더불어 소비주의와 함께 구성되는 당대 중국적 남성성의 실천이다.

투난이 지향하고 실천하는 남성성이 새로운 남성성으로 대두되고 있음은 동생 투베이가 그가 전시하는 남성성을 욕망하는 데에서 나타난다. 투베이의 시선에 비친 투난은 무소불위하다. 투베이가 보는 것은 주재자로서 형, 그가 지니는 권력이다. 그래서 투베이는 “또 다른 형, 또 다른 완벽한 인투난”(229쪽)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투난은 자신의 삶과 동일시를 이루지 못한다. 이는 그가 스스로를 돈은 있지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며, 자신을 모방하려는 동생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투난이 자신의 삶과 동일시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가 전유한 남성성

33) 毕飞宇, 〈哥俩好〉, 《毕飞宇文集·轮子是圆的》, 江苏文艺出版社, 2004, 233页.

을 확인받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다. 남성성은 “다른 남성들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아야”³⁴⁾한다. 투난에게 있어 그의 남성성은 아버지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보증됨으로써 비로소 구축된다. 아버지의 인정을 통해, 그가 구현하는 남성성이 아버지가 구현하는 남성성을 대체하는 새로운 남성성으로서 가치를 보장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왜 그럴까. 투난의 남성성은 아버지의 ‘이상’에 의해 배태된 ‘장자’ 투난과 사회현실에 의해 배태된 ‘사업가’ 투난에 의해 실천된다. ‘사업가’ 투난이 구현하는 남성성은 ‘장자’ 투난의 남성성을 억압하고 은폐한 결과이다. ‘사업가’ 투난의 고통은 그에게 내면화된 ‘장자’ 투난의 남성성이 작동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장자’ 투난의 남성성이 아버지에 의해 부여된 것이기에, 이를 억압하고 은폐해서 생겨난 ‘사업가’ 투난의 고통은 아버지의 수용과 긍정에 의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사업가’ 투난으로서 아버지와 관계 복원을 시도한다. “그는 돈을 번 후 아버지에게 천 위안을 부쳤다. 이는 아버지를 떠보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돈을 받으면 모든 게 다 수월해진다. 아버지가 받기만 하면, 투난의 고통도 송금영수증과 함께 평안을 얻을 것이다.”(234쪽)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보낸 돈을 돌려보냄으로써, ‘사업가’ 투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나는 진작부터 인씨가 아니었어”(250쪽)라는 투난의 한탄에는 가족(아버지) 관계가 결여된 아들의 절망과 불안이 내재되어 있다. 그의 존재적 불안은 ‘모체(아버지)’, 즉 근원으로서 ‘집’을 상실한 아들의 불안이며, 그의 고통은 장자라는 가부장제가 부여한 정체성 수행을 거부한 아들의 고통이다.

주목할 것은 투난이 자신의 결여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투난은 자신과 동일시를 욕망하는 투베이를 강력하게 저지하는 동시에 아버지와 동일시를 요구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대학에 떨어진 투베이를 자비 입학생으로 사범대학에 보내고, 교사라는 집안(아버지)의 이상에 전혀 뜻이 없는 투베이를 끊임없이 설득한다. 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공부에

34) 피에르 부르디외, 앞의 책, 73쪽.

전념하라고 동생을 설득하는 그의 모습은 아버지가 부재한 가족 구조에서 그가 자신을 ‘아버지’로 치환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투베이 역시 자신이 투난의 동생이 아닌 아들이라고 느낀다. 투난에게 있어 투베이가 자신에게 순응하는 것은 곧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이 성공한 것이고, 이는 그가 상실한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난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반역했던 것처럼, 투베이 역시 투난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투난에게 반역한다.

혼자 남은 ‘사업가’ 투난은 가부장제에서 부여한 정체성의 부재를 상징한다. ‘사업가’ 투난과 동일시를 이루지 못하는 투난은 가부장제에서 규정된 남성 정체성이 전제되지 않은 남성성 수행의 무의미함을 보여준다. 투난을 통해 나타나는 지배적 남성성의 불안정성은 장자라는 그의 남성적 정체성과 연결되어 한층 심화되어 있다. 의심할 바 없이, 투난이 ‘사업가’ 투난을 부정하고 동생을 통해 아버지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장자’에게 정의된 남성성 수행을 거부한 것에 대한 죄책감의 발로이다. ‘사업가’ 투난의 고통, 그가 동생을 ‘양육’함으로써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것 등은 가부장제가 남성에게 부여한 정체성, 이로부터 정의되는 남성성의 공고함을 드러낸다. ‘장자’가 조부에서 아버지로 이어지는 남성지배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투난의 정체성 불안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남성지배의 양가성-권력이자 억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 볼 때, 혼자 남은 투난이 보여주는 관계의 결여는 ‘성공한 남성’이 전유하는 지배적 남성성의 훼손에 그치지 않고,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당연하게 부여되었던 지배로서 남성과 남성성에 대한 이상성을 훼손하는 공간이 된다.

정리하자면,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캄웨이예나 혼자 남은 투난은 아버지, 남편, 아들로 정의되는 가부장제 남성 정체성이 ‘성공한 남성’이라는 지배적 남성성과 불화하는 지점을 전시하는 공간이다. 캄웨이예는 아버지이자 남편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하게 실천하는 방식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의 확보 및 이에 따른 ‘성공한 남성’의 지배성을 보여주지만,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 역할 수행이 경제적인 능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매우 단순하면서도 당연한 이 진리가 ‘성공한 남성’이 전시하는 이상성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 투난은 가부장제에서 규정한 정체성이 결핍된 상황에서 구축된 남성성은 그것의 이상성이나 지배성과는 무관하게 그 구축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투난의 고통이 가부장제가 부여한 남성성 수행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남성성 실천을 기획한 결과임을 볼 때, 남성성 역시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추구될 수 없을뿐더러 젠더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즉, 이들이 보여주는 관계의 결여는 지배적 남성성과 남성 정체성 수행의 간극을 증명함으로써, 지배적 남성성의 이상성을 비틀고 있는 것이다.

IV. 새로운 남성성의 모색 : 이질화된 영웅적 남성성의 유포

刘传霞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중국소설의 남성성 서술의 특징 중 하나는 전통적인 지배적 남성성의 호명이다.³⁵⁾ 예컨대, 〈笨花〉(铁凝)의 向喜는 유교 문화가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전통적인 남성성의 우월성을 가시화한다. 하지만 그가 전유하는 남성성은 당대 사회와는 불화한다. 그가 구현하는 남성성이 아들을 통해 재생산되고 유포되는 대신 그의 죽음과 함께 퇴장하며, 아들은 아버지와 대조적인 남성성을 구축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난다. 신혁명역사소설을 통해 소환된 수많은 남성 ‘영웅’들도 여성적인 것이 배제된 전통적인 지배적 남성성을 체현하지만, 이러한 남성성을 전유한 남성 인물들의 서사가 전쟁터나 초원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현실사회에서 구현되기 어려운 ‘상상’으로서 남성성임을 설명한다.³⁶⁾

이러한 가운데, 都梁의 〈亮剑〉에 등장하는 리윈룡(李云龙)이 체현하는

35) 刘传霞, 〈全球化与消费主义话语中的男性再现〉, 90页.

36) 같은 글, 91页. 雷达도 당대소설이 실패하지 않는 서술원칙으로 영웅서술은 고대 시기를 배경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전통적인 지배적 남성성을 전유한 영웅 남성과 현실 사회의 불화를 설명하기도 했다. (〈当今文学审美趋向辨析〉, <http://www.chinawriter.com.cn> 2007年01月12日)

남성성은 상당히 흥미롭다. 그에 대한 언술은 ‘영웅’으로 모아진다.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이름을 날리게 된 그는 “영웅 협객을 숭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담장을 날아다니고 양손으로 총을 쏘며 백 보 거리에서도 버들잎을 맞추는 협객”³⁷⁾으로 전해 온다. 그의 동료이자 친구인 자오강(趙剛)은 그를 “정직하고 인정이 많으며 정의롭다”고 하면서, “매우 뛰어난 사내대장부이자 영웅적인 기질을 갖춘 남자”(194쪽)라고 평가한다. “강한 적을 만났을 때 죽을 것을 알면서도 칼을 뽑는다”(18쪽)는 ‘양검 정신’은 그의 영웅적인 기질을 대표하는 주요한 자질 중 하나이다. ‘영웅’으로서 그의 우월성은 결혼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다. 그의 아내가 된 티엔위(田雨)는 간호사로, 지적 문화적인 우월성뿐 아니라 뛰어난 외모까지 갖춤으로써 완벽하게 이상화된 여성상을 체현한다. 이러한 그녀는 리윈룡을 영웅으로 숭배하면서 리윈룡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설득한다. 티엔위는 영웅을 다음과 같은 특질로 설명한다. 첫째, 애국심이다. “전쟁터에서 적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영웅이 아니라면 누가 영웅이겠어요?”(97쪽) 둘째, 여성적인 것이 배제된 남성다움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오로지 남자들에게만 있고 여자들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건 바로 엄숙, 위엄, 혈기와 영웅적인 기질입니다. 용감하고 깨끗한 성격이야말로 남자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중략)

난 선비적인 기질이 다분한 남자는 싫어요. 혈기 넘치고 위엄 있고 용감한 남자가 좋아요.(98쪽)

티엔위가 남성적인 것이라고 구별한 특질은 기실 매우 주관적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러한 기질을 오로지 군인에게 배치하면서 여성성과 구별되는 남성성으로 확정한다. 영웅으로서 리윈룡의 남성적인 우월성은 그가 티엔위와의 관계 안에서 스스로 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통해 확정을 받는

37) 都梁, 《亮劍》, 北京联合出版公司, 2014, 11页.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에 표기함.

다. 그는 무뢰한인 자신이 티엔위라는 완벽한 여성을 통해 영웅으로 호명되면서 “신망이 높은 신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미인에게 숭배를 받는 건 항상 있는 일이 아니다. 리원룡은 순간 자신의 모습이 위대해지고 있다고 느꼈다.”(83쪽)

주목할 것은 영웅으로서 리원룡이 체현하는 남성성의 비전형성이다. 주지하다시피, 영웅은 가장 우월한 인성의 집약체로서 이상성을 부여받는다.³⁸⁾ 이들의 건장한 신체와 준수한 외모는 영웅적인 남성성을 구체화하는 장이다. 예컨대, 중국당대문학에 등장하는 혁명 영웅은 외형적으로는 큰 키와 건장한 체격에 준수한 외모를 갖추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강건함, 용감함, 소박함, 희생정신 및 무산계급사상을 신념으로 하는 정치적인 각성 등을 전유한다.³⁹⁾ 이때 영웅의 몸은 그의 내적인 본질을 구체화한다.⁴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웅으로서 리원룡이 전시하는 남성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질적이다.

첫째, 탈(脫)이상화된 몸이다. 리원룡의 몸에 대한 서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큰 머리이다. 체격에 비해 큰 머리는 그의 신체적인 불균형성을 설명한다. 이로부터 리원룡의 몸은 영웅의 몸에 대한 보편적인 상상을 깨뜨린다. 또한, 리원룡의 몸은 단지 내적 자질을 구체화하는 장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육탄전에 대한 선호는 리원룡의 몸이 철저히 육체화된 몸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그의 육체화된 몸은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중상을 당하고도 그것이 이후 그의 삶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는 데에서 절정에 이른다. 신체적인 강인함에 방점이 찍히면서 그의 몸은 독자적으로 의미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화된 몸은 폭력성과 결합하여 과잉 남성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변이된다.⁴¹⁾ 이로부터

38) 孙兰, 〈英雄礼赞: 文学的历史责任〉, 《文艺评论》 第1期, 2001, 69页.

39) 张伯存, 앞의 글, 14-15页.

40) 刘复生, 앞의 글, 39页.

41) 이 작품이 “혁명역사소설이면서도 혁명에서 벗어나 폭력적인 격투에만 몰입한 액션 영화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은 리원룡의 몸을 통해 드러나는 과한 육체성과 폭력성을 설명한다. 같은 글, 40页.

터 전형적인 영웅적 남성성이 내포하는 숭고미가 해체되고, 리원룡이 전시하는 남성성은 이질성을 부여받는다.

둘째, 야만적인 기질이다. 그의 야만성은 매우 복합적인데, 욕설로 점철된 정제되지 않은 거친 화법, 규율에 매이지 않는 막무가내식 행위방식은 그의 이러한 야만적인 기질을 구체화하는 기제이다. 이들은 군대 대장이라는 그의 신분과 그 신분에 따라 정의되는 남성성에 대한 상상을 완전히 해체한다. 특히, 실리주의와 전제성은 그의 야만성을 구성하는 주요한 성격적 특질이다. 그는 “이득이 있으면 하고 이득이 없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하지 않는다. 오로지 잇속을 챙겨야지 손해를 볼 수는 없다(24쪽)”는 전투 원칙을 내세운다. 전쟁 앞에서 이해득실을 내세우는 모습은 분명 그가 추구하는 ‘양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영웅적 남성성이 내포하는 숭고미와 대치하면서, 그의 실리주의적인 세속성을 강조한다. 티엔위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전제성 역시 영웅적 남성성의 이상성을 훼손한다. 티엔위가 마음에 든 그는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굳게 결심하지만, “티엔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문제이다.” (83쪽)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은 전제적인 태도로 연결되는데, 이는 티엔위와의 관계를 위계화하는 바탕이다. 그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하고, 여자는 남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131쪽)는 규칙을 신봉하면서, 그와 다른 아내의 사고나 가치관을 가차 없이 비판한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야만성은 영웅적인 남성적 기질에 의해 은폐된다. 남편의 야만성에 절망해서 이혼까지 생각했던 티엔위는 “영웅적인 기개를 갖춘 남자가 동시에 부드럽고 다정할 수 있을까”(132쪽)라는 의문과 함께 리원룡의 야만성을 정당화한다. 자오강 역시 리원룡의 성격적인 결함으로서 야만성을 인정하지만, “영원히 용기 있는 영웅”으로 “사내대장부”이자 “영웅적 자질을 갖춘 남성”이라는 말로 리원룡의 결함을 보상한다.(194쪽)

이처럼, 리원룡의 야만성이 영웅적인 남성적 기질에 의해 은폐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정규군”이 아닌 “산적 두목”으로 재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이끄는 부대를 산적에 비유하며, 간부들에

게 “정규군의 태도를 버리고 산적 두목”이 될 것을 주문한다.(24쪽) 리원룡이 자신을 ‘산적 두목’으로 호명함으로써, 그의 남성성은 군대 고급 관료에게 정의되는 남성성 대신 중국 전통문화 내 협객이 전시하는 영웅적 남성성과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동료의 복수를 위해 사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부대원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티베트인들의 양식을 탈취하는 등 ‘정규군’ 대장으로서의 제재의 대상이 된 일련의 행위방식들이 ‘산적 두목’으로서의 그의 의협심과 용맹 등을 증명하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산적의 생존방식을 탈취로 규정하면서 그들의 전투 목적도 탈취에 두지만, 오로지 ‘적’으로부터 탈취임을 강조함으로써 그와 그가 이끄는 부대원들은 ‘정의로운’ 산적이 되는 것이다. 정의로운 산적으로서 리원룡의 행위는 정당성과 당위성을 획득하고, 그것이 내포하는 무규율성, 무질서성은 은폐된다. 이와 동시에, 야만적인 기질이 내포하는 부정성, 열등성도 희석된다. 그리고 리원룡은 형제애를 중시하고 정의로우며 친구와 적은 확실히 구분하는 협객적인 영웅적 남성성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리원룡이 전시하는 남성성은 영웅으로서 이상성과 반(反)영웅으로서의 이질성이 혼재되어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이질화된 영웅적 남성성에 대한 수용과 긍정이다. 리원룡은 문화대혁명 시기 반혁명분자라는 오명을 쓰고 자살한다. 그러나 그는 10년이 지난 후 혁명 영웅이자 장군으로 복권된다. 20년이 흐른 후에는 젊은 남녀가 그가 거주했던 곳을 찾아 눈물을 흘리며 그를 기념한다. 이러한 결말을 통해 작가는 리원룡이 전시한 남성성에 대한 당대 사회의 긍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의 남성성에 대한 수용과 긍정은 자오강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자오강은 “전투에도 능하고 학문도 풍부한”(133쪽) 인재이다. 주지하다시피, 문무를 겸비한 남성성은 중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성성으로 규정된다.⁴²⁾ 자오강

42) 雷金庆은 중국의 지배적 남성성을 문(文)적 남성성과 무(武)적 남성성으로 분류하고, 이 두 가지 특질의 공존을 가장 이상적인 남성성으로 보았다.(雷金庆(刘婷 译), 《男性特质论》, 江苏人民出版社, 2012, 21-22页, 227页) 方刚은 剛/柔의 개념으로 중국 남성성의 특질을 설명했다. 중국의 남성성을 설명하는

이 전시하는 남성성의 이상성은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리원룡이 그를 숭배하고 있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복권된 리원룡과 달리, 자오강의 복권에 대한 서술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전시하는 남성성이 중국문화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성성으로 상상되는 것과는 별개로, 물질화된 당대 사회에서는 존재할 공간이 부재함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리원룡의 이질화된 영웅적 남성성이 당대 사회와 만나는 지점은 어디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의 의협심, 용맹함, 정과 의를 중시하는 것 등은 개인화, 물질화에 파묻혀 퇴색된 정신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욕망을 반영한다. 그러나 리원룡이 전시하는 남성성에 대한 사회적인 동일시는 이러한 전형적인 긍정적 영웅성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작품에서 리원룡에 대한 서사는 전형적인 영웅적 자질을 갖추지 않은 그가 영웅으로 숭배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대학 교육을 받은 자오강과의 비교를 통해, 그는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지적, 문화적 자원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린다. 또한, 국민당 정규군 및 대장과의 비교를 통해, 리원룡의 부대와 리원룡은 경제적, 정치적 자원도 부재함을 보여준다. 리원룡이 신분적, 문화적, 경제적 열등성을 뛰어넘어 전쟁 영웅으로 지배적인 남성성을 전유하게 된 것은 뚜렷한 목적(전쟁 승리)을 설정하고 불사의 태도로 분투(양검 정신)한 데 있다. 이는 목적 설정과 달성에 대한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평범한 개인이 개인의 힘에 의지하여 영웅이 될 수 있음을 독려한다. 전쟁에서 배태된 남성성이지만 규율과 명령과 복종 같은 “남성적인 덕목”⁴³⁾이 약화되어 있는 것도 그의 남성성이 전쟁터를 벗어나 개인화, 다원화된 당대 사회와 만날 수 있는 요인이다. 张慧瑜는 “상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규율과 명령을 어기면서도 공을 세울 수 있는 영웅은 국가/민족의 영웅이라기보다

범주가 文/武이든 剛/柔이든, 중국문화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남성성은 두 가지 상반된 특질이 공존하는 남성성이다.(徐艳蕊, 《媒介与性别：女性魅力、男子气概及媒介性别表达》, 浙江大学出版社, 2014, 126页)

43) 전쟁과 순사(殉死), 남성의 정절과 영웅주의, 규율과 훈련, 명령과 복종은 남성다운 덕목들로 이해된다. 토마스 퀴네 외 지음, 앞의 책, 210쪽.

는 이 시대 가장 성공한 전문경영인”이라고 평가하면서, ‘양검 정신’이 시장경제 체제 속 “경쟁 법칙과 격려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한다.⁴⁴⁾ 이해득실을 중시하는 상업적인 실리주의에 기반한 리원룡의 전투 원칙이 시장경제 체제의 소비사회와 호응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양검 정신’과 만남으로써 상업성에 바탕을 둔 실리주의가 내장하는 물질성, 세속성과 같은 부정성은 희석되고, 당대 중국 사회 새로운 남성성으로서 사회적 동일시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그가 전시하는 남성성은 전쟁터를 넘어 시장경제 체제의 소비중심 사회에 최적화된 남성성으로 전이된다. 요컨대, 영웅적 남성성과 반영웅적 남성성을 넘나들며 당대 사회에 소환된 그의 남성성은 중국식의 ‘초국적 비즈니스 남성성’⁴⁵⁾이라 할 수 있다.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여성성을 배제함으로써 구축되는 남성성에 내포된 초조와 불안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 사회는 ‘都市美行男’, ‘伪娘’ 등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재된 남성을 설명하는 신조어들을 끊임없이 생산해왔다. 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분화된 성별 구조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현실은 전래된 남성의 주도적인 이미지가 흐릿해지고 남성적인 것으로 간주된 것이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국면, 즉 남성성의 위기를 표명한다.⁴⁶⁾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여성적인 것을 배제한 남성성의 소환과 이에 대한 우월시는 남성성의 약화에 대한 반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공한 인사’의 남성성 서술이 보여주듯, 남성성은 남성에게 억압이 될 수 있다. 또한, 남성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배제함으로써 형성되는 남성성은 오히려 고립이라는 위험을 내포한다. 따라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경계 약화는 억압으로부

44) 张慧瑜, 〈三类男性形象与主流意识形态的重建〉, 《艺术广角》 第4期, 2012, 63页.

45) 초국적 비즈니스 남성성은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고 글로벌화된 지구 경제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지배적 형태의 남성성을 의미한다. R.W.코넬, 앞의 책, 20-21쪽.

46) 토마스 퀴네, 앞의 책, 35쪽.

터 해방, 고립으로부터 화해를 약속하는 중요한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적인 것과 차별화된 남성적인 것의 소환은 그것이 주는 권력에 대한 향수 때문이다. 여기에서 상기해야 할 것은 남성성의 이행과 표증이 성별적인 관계에만 간여하지 않고 문화적인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점이다.⁴⁷⁾이로 보자면, 1990년대 당대 중국 사회에서 소환된 이질화된 영웅적 남성성은 성별적 문화적 권력과 지배에 대한 중국적인 욕망을 투영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

V. 나오면서

이상, 1990년대 이후 중국소설에 나타난 남성성 서술을 살펴보았다. 1990년대 이후 중국소설에 나타난 남성성 서술은 대중매체가 추앙하는 이른바 ‘성공한 인사’로서 지배적 남성성을 유포하기보다는 지배적 남성성이 남성자아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탐색한다. 또한, ‘성공한 인사’와는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남성성을 모색하고 구축한다. 이러한 남성성 서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배적 남성성을 욕망하는 남성자아의 남성성 표현과 그 의미이다. 이는 특히 도시 남성가장의 남성성 실천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전시하는 남성성 표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력과 연동된 남성성의 양가성이다. 경제적 능력이 지배적 남성성을 규정하면서, 남성의 존엄과 위상은 교환 가능한 것으로 전락한다. 남성가장은 물질로 기표화되며 주체성은 탈각되고 마는 것이다. 둘째, 지배적 남성성의 이중성이다. ‘성공한 인사’가 보여주는 관계의 결여는 지배적 남성성의 실천이 오히려 가부장제가 규정한 남성 정체성과는 불화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물질에 기반하여 구축된 지배적 남성성의 아이러니로, 지배적 남성성의 허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질화된 영웅적 남성성이다. 이질화된 영웅적

47) 张伯存, 앞의 글, 9쪽.

남성성은 전형적인 영웅적 남성성의 긍정적인 자질과 소비주의 사회에 부합하는 상업적인 기질을 동시에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물질화의 심화 속에서 부재하는 도덕적 정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동시에 시장경제 체제의 경쟁 원리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여성성의 배제와 남성성의 강화를 특질로 하는 이 남성성은 일면 남성적인 것의 약화에 대한 초조와 불안을 명시한다.

이로 보자면, 1990년대 이후 중국소설에 나타난 남성성 서술은 남성(성)의 위태로움에 대한 서사라 할 것이다. 하나는 지배적 남성성이 가부장제에서 부여한 젠더를 수행하고 수행해야 하는 남성자아와 불화함으로써 나타나는 위태로움이다. 지배적 남성성의 추구는 가장으로 정체성이 규정된 남성자아의 주체성 탈각을 수반하고, 지배적 남성성을 전유한 남성자아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존재적 불안을 보인다. 이는 젠더에 갇힌 남성(성)의 위태함이라는 점에서, 남성성이 여성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자아를 억압하는 기제라는 것을 새삼 증명한다. 다른 하나는 이질화된 영웅적 남성성 소환이 내재하는 위태로움이다. 이러한 남성성의 소환이 주의를 요하는 것은 여기에 내장된 성별적 문화적 헤게모니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그런데 남성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배제하고 구축되는 남성성은 불화와 고립의 위험을 내포한다. 이것이야말로 이질화된 영웅적 남성성이 내재하는 가장 큰 위태로움일 것이다.

<참고문헌>

- 신경아, <신자유주의시대 남성 생계부양자의식의 균열과 젠더관계의 변화>, 《한국여성학》 30권4호, 2014.
- 이영자, <남성성의 사회적 구성과 성의 정치>, 《성평등 연구》 5, 2001.
- 조지 L 모스(이광조 역), 《남자의 이미지》, 문예출판사, 2004.
- 존 베이넌(임인숙·김미영 역), 《남성성과 문화》,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1.

- 줄리아 우드(한희정 역), 《젠더에 갇힌 삶》,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6.
- 최은정, 〈池莉의 〈有了快感你就喊〉에 나타난 남성성 고찰〉, 《中國語文學》 71輯, 2016.
- 최은정, 〈츠리(池莉) 소설에 나타난 ‘집’의 의미 고찰〉, 《비교문화연구》 47집, 2017.
- R.W. 코넬(안상욱·현민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3.
- Christopher T. Kilmartin(김지현 외 공역), 《우리 안의 남성》, 학지사, 2009.
- 토마스 퀴네(조경식·박은주 역), 《남성의 역사》, 솔 출판사, 2001.
- 피에르 부르디외(김용숙 역), 《남성지배》, 동문선, 2003.
- 한국영미페미니즘연구학회,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민음사, 2000.
- 毕飞宇, 《那个夏季那个秋天》, 人民文学出版社, 2015.
- 毕飞宇, 〈哥俩好〉, 《毕飞宇文集·轮子是圆的》, 江苏文艺出版社, 2004.
- 蔡翔, 〈私人性和相关的社会想象〉, 《花城》 第4期, 1996.
- 陈建光, 〈男性意识与文学性征〉, 《江西社会科学》 第2期, 2003.
- 池莉, 〈来来往往〉, 小说月报编辑部编, 《第8届百花奖获奖作品集》, 百花文艺出版社, 2000.
- 池莉, 〈有了快感你就喊〉, 《池莉近作精选》, 长江文艺出版社, 2003.
- 池莉, 《水与火的缠绵》, 北京十月文艺出版社, 2010.
- 都梁, 《亮剑》, 北京联合出版公司, 2014.
- 黄河, 〈男性研究对性别平等教育的意义〉, 《妇女研究论丛》 第2期, 2008.
- 雷达, 〈当今文学审美趋向辨析〉, <http://www.chinawriter.com.cn>, 2007年01月12日.
- 雷金庆(刘婷 译), 《男性特质论》, 江苏人民出版社, 2012.
- 刘传霞, 〈全球化与消费主义话语中的男性再现〉, 《山东社会科学》 第8期, 2015.
- 刘传霞, 〈1950~1970年代中国文学的男性想象〉, 《中国图书评论》 第7期, 2016.

- 刘复生, 〈从欢乐英雄到历史受难者〉, 《文艺理论与批评》 第6期, 2005.
- 孙兰, 〈英雄礼赞:文学的历史责任〉, 《文艺评论》第1期, 2001.
- 王晓明主编, 《在新意识形态的笼罩下》, 江苏人民出版社, 2000.
- 徐艳蕊, 《媒介与性别:女性魅力、男子气概及媒介性别表达》, 浙江大学出版社, 2014.
- 张伯存, 《中国当代文学和大众文化中的男性气质》, 华东师范大学博士学位论文, 2006.
- 张慧瑜, 〈三类男性形象与主流意识形态的重建〉, 《艺术广角》 第4期, 2012.

< Abstract >

In the 1990s Chinese fictions, narratives of masculinity are summarized in three aspects. Firstly, male egos manifest masculinity which aspires to be dominative. the pursuit to hegemonic masculinity accompanies self objectification and loss of his identity. Secondly, hegemonic masculinity is ambilateral. The successful male lacks relationship, only to prove that the practice of hegemonic masculinity is in discord with masculinity which has been provided by patriarchy. Finally, the heterogenized heroic masculinity has been created. It simultaneously embraces positive qualifications of traditionally heroic male identity and the commercialistic trait that goes with the consumeristic society. Meanwhile, the masculinity featuring elimination of everything non masculine reveals nervousness and anxiety for its weakening. Hereby, male narratives in the 1990s Chinese fictions expose precariousness of masculinity with two features. The hegemonic masculinity causes precariousness because it disagrees with the masculinity that is required to practice gender roles granted by the patriarchal system. Also, masculinity becomes precarious because it

claims to be powerful. The request for powerful masculinity reminds it of masculinity that leads to control and power. Since the powerful masculinity is built on eliminations of non masculine traits, it contains dangers of isolation and discord. Then it becomes a major precariousness conceived in the strong masculinity.

Key Words : 지배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 물화된 남성자아(objectified male identity), 이중성(ambilaterality), 결여(lack of relationship), 이질화된 영웅적 남성성(heterogenized heroic masculinity), 남성적인 것의 욕망(desire for masculinity), 위태로움(precarious masculinity)

